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 창단 30주년 기념 연주회.



시립예술단 8개 단체가 상반기 주요 라인업을 공개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무대에 오르는 광주시립발레단 '코펠리아' 장면.

<광주예술의전당 제공>

다채로운 공연 무대 올해도 시민과 함께

광주시립예술단 8개 단체 상반기 라인업

시향 '체임버 시리즈'

발레단 '살롱콘서트'

합창단 '신춘음악회'

창극단 '판소리 감상회'

국악관현악단 '꿈, RETURNS'

소년소녀합창단 'Gloria'

극단 '위선자 타르튀프'

오페라단 기획공연 '50 Star'

광주시향, 광주시립발레단 등 광주시립예술단 8개 단체가 '신년 계획 및 상반기 주요 라인업'을 공개했다. 단체별로 새롭게 선보이는 공연부터 기존 레퍼토리를 발전시킨 작품까지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진다.

먼저 지난해 정기연주회 대부분을 매진시켰던 광주시립교향악단은 상반기에만 12회 이상 공연을 계획 중이다. 정기연주회 6회를 비롯해 오티움 콘서트 2회, 체임버 시리즈 3회, 어린이날 특별공연 1회 등이 클래식 낭만을 선사한다.

오는 2월 21일 ACC 예술극장 극장2에서 선보이는 GSO 기획공연 '체임버 시리즈' 첫 무대는 'Cello Moments'라는 주제로 펼쳐진다. 파헬렐 '개는 변주곡', 골터만 '렐리지오소' 등 명곡을 만나게 된다. 3월 이후 일정은 예술감독 취임 후 별도 공개한다.

광주시립발레단(예술감독 박경숙) 첫 무대는 낭만부터 고전 발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작품을 갈라 버전으로 만드는 '발레살롱콘서트-Voice of spring'이다. (3월 21-22일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광주 5·18민주화운동을 초점화한 창작발레 'Di-

vine'은 5월 16-17일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선보인다. 서사성을 최소화한 채 오롯이 무용수들 몸짓을 통해 이야기를 전하는 작품으로, 안무 작업은 주재만이 맡았다.

지난해 10월 정기공연으로 상연했던 '코펠리아'는 대한민국 발레축제에 초청받아 5월 31일 서울 예술의전당 무대에 오른다. 19세기 낭만 희극발레의 대표작이며 연금술을 즐기는 괴짜 과학자 코펠리우스의 기계 인형을 다뤘다. 또한 찾아가는 문화공연 일환으로 '해설이 있는 발레'는 6월 중 상무시민공연 야외무대 등에서 펼칠 예정이다.

광주시립합창단(상임지휘자 임장은)은 정기 1회, 기획연주회 5회로 관객들을 만난다. 정기공연 '신춘음악회'는 3월 13일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열리며 한국 가곡, 예리 휘태커의 'Five Hebrew Love Songs' 등으로 채워진다.

미취학 어린이를 위한 음악회 '친구가 놀자' (4월 10-11일), 합창 뮤지컬 '피터팬과 후크 선장' (5월 23-24일) 등도 어린이 관객들을 찾아온다. 이외 마티네 콘서트 '어울림'은 전당 로비에서,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월 27일에는 '기억과 희망'을 통해 포레

의 '진혼곡'과 베토벤 '합창 환상곡' 등을 들려준다.

한편 광주시립극단은 4월 30일 '판소리 감상회'를 시작으로 기획공연 '천변만화' (5월 23일), '판소리 감상회' (6월 25일) 등으로 전통의 신명을 더한다. 창극단은 민요와 판소리, 한국무용과 타악 등 전통문화예술을 한 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시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갈 예정이다.

지난해 창단 30주년을 맞은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상임지휘자 박승희) 또한 국악 대중화를 모색하는 작품들을 준비 중이다. 4월 4일 전당 대극장에서 열리는 '꿈, RETURNS'는 문경미 단원의 위촉 초연 서곡을 시작으로 고향 무대에 올라선 국악 연주자들의 초연곡을 연주한다.

'청소년 협연의 밤' (6월 27일) 또한 지역 국악예술 후학들의 실력을 감상하는 자리로, 여성 지휘자들이 각 국악전공 대학교 추천 협연자들(학생)과 함께 무대에 오른다.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상임지휘자 권기원)은 정기공연 비발디 'Gloria',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특별 초청연주회 'Friendly Concert' 등에 출

연한다. 5월 어린이날에는 지역 어린이 관객들에게 직접 찾아가는 문화공연도 야외(첨단 삼암공원) 무대에서 선보인다.

광주시립극단(예술감독 원광연)은 고전명작 시리즈 '위선자 타르튀프' (4월 24-26일)로 막을 올린다. 프랑스 작가 몰리에르의 동명 희극을 원작으로 기득권의 위선과 허위를 풍자하는 내용. 이어 출장연극 시리즈 두 번째 이야기는 ACC 예술극장에서 시작해 광주시 각 구별 공연장에서 상연할 계획이다.

광주시립오페라단(예술감독 최철)은 상반기에 기획공연 '50 Star' (4월 4-5일)와 콘서트오페라 '사랑의 묘약' (5월 30-31일)을 각각 선보인다. 그중 '50 Star'는 대중이 사랑하는 오페라 대표 합창곡과 세기의 명곡, 가곡 등을 들려주며 오페라 입문자부터 애호가까지 관람하기 좋다.

윤영문 전당장은 "지난 한 해 동안 관객들께서 보내주신 뜨거운 성원에 감사드립니다"며 "올해에는 전당 개관 34주년을 맞아 다채로운 공연을 준비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고 했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ACC재단, 아시아 사운드 아카이브 '예언' 수출

일 음반 유통사 '디스크 유니온' 입점

앨범 '예언'은 ACC재단이 올해 추진한 '아시아 사운드 아카이브' 일환으로 제작됐다. 60~70년대 한국 대중음악과 신민요, 전통 장단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음악이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사장 김선옥·ACC재단)은 작년 5월 발매한 앨범 '예언' (12인치 LP/바닐라)이 첫 해외 수출 성과를 이뤘다.

'예언' 앨범은 일본을 대표하는 음반 유통사인 디스크 유니온에 입점했다. '디스크 유니온'은 재즈 등 장르별 특화 매장을 운영하고 있어 전 세계 음악 마니아들이 즐겨 찾는 대표 레코드점이다.

'예언'은 멜론, 벅스, 유튜브, 애플 뮤직 등 국내외 16개 음원 플랫폼 50개국에서 약 5만 8000회 가량 이용된 것으로 집계됐다.

음반 제작에는 DJ소울스케이프가 이끄는 경음악단 'STUDIO 360'이 참여해 밀양아리랑 등 익숙



프로젝트 앨범 '예언' 이미지. <ACC재단 제공>

한 민요 멜로디를 다른 리듬의 질감으로 해석했다.

김선옥 ACC재단 사장은 "이번 앨범 '예언'은 한국 음악의 가치를 대내외에 알리는 앨범으로 각광 받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재단은 아시아를 넘어 세계인들에게 사랑받는 다양한 문화 상품을 제작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솔직히' 공연 장면.

<ACC 제공>

죽음을 직면할 때 인간은 솔직해진다. 그러나 죽음 이후 진솔해진다 한들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전생과 사후세계를 배경으로 '가식과 진실'에 초점을 맞춘 무용극을 보고 나면 일말의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전당장 이강현·ACC)은 연극 '솔직히(Frankly)'를 오는 24일(오후 7시 30분), 25일(오후 2시) ACC 예술극장 극장1에서 선보인다.

ACC 국제협력공연 첫 작품이며 일본 무용단 케다고로와 국내 고블린파티가 만나 양국 시선으로 전생, 윤회, 사후세계 등 소재를 풀어낸다.

'이승의 가식은 저승의 솔직/ 저승의 가식은 이

ACC '솔직히' 24~25일 예술극장

승의 솔직/ 여기는 이승? 저승? 아마도 UKIYO (떠도는 세계)?

작품은 일본 중세 이전의 염세적 인생관인 'UKIYO'와 한국적 발상의 접점을 모색한다. 이승에서 보여줬던 가식은저승에서는 솔직함으로 변모하고, 저승에서 드러난 거짓은 이승에서는 진솔함으로 바뀌는 과정을 통해 삶의 진정성을 탐색한다.

작품은 진실과 거짓의 순환 속에서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를 넘나든다. 삶과 죽음의 본질을 관객에게 질문으로 던지며 현세에 대한 긍정적인 의미를 환기한다.

한편 ACC는 지난 2022년부터 아시아 문화자원을 소재로 동시대적 해석을 가미한 국제협력 사업을 진행해왔다. 현재까지 10편을 선보였으며 올해는 '솔직히'를 시작으로 10월 영국·홍콩과 협력공연('1'C), 서울국제공연예술제·독일 협력작('세 번째 전생'), 11월 키르기스스탄 국립극장 제작공연('세메데이') 등을 무대에 올린다.

이강현 전당장은 "한일 양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두 무용단체가 만나 '해학', '공감'의 정서로 풀어내는 기대작을 상연한다"며 "두 나라의 서사는 비슷하면서도 다른 측면이 있어 모순적이면서도 솔직한 이번 공연 주제와도 맞닿아 있다"고 했다. 전석 2만 원. /최류빈 기자 rubi@

한강 '소년이 온다' 2000년대 가장 중요한 책

2위 정희진 '페미니즘의 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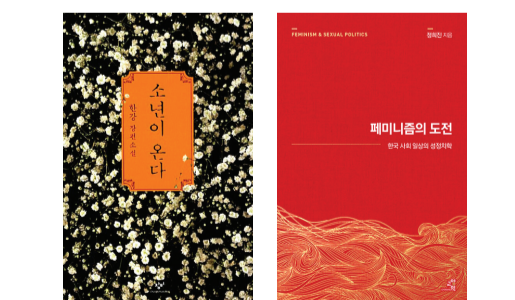
인터넷 서점 알라딘 발표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는 5·18 당시 시위대 속에 있었던 친구의 시신을 찾는 중학생 동호의 이야기다. 항쟁 과정, 이후 살아남은 자들의 상처와 고통을 섬세한 문체로 형상화했다. 소설은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도 국가의 불의한 폭력에 맞서 시위 현장으로 나서야 했던 '깨끗하고도 무서운 양심'을 절절하게 풀어낸다.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가 2000년대 발간된 책 중에서 가장 중요한 책으로 선정됐다.

인터넷서점 알라딘은 책 전문가 10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조사 결과(지난해 11월부터 2개월간)를 발표했다. 그 결과 한강의 '소년이 온다'가 2000년대 최고의 책으로 뽑혔다. 한강의 '채식주의자'는 9위, '작별하지 않는다'는 14위에 올랐다.

이번 설문은 작가를 비롯해 번역가, 출판인, 연구자 등이 참여했다. 설문 제목은 '지난 25년간 출간된 책 중 가장 중요한 책, 현재의 세계에 영향을 끼친 저작, 그리고 앞으로의 세대를 위해 더 많이 읽



어야 할 책'이었다.

정여울 작가는 '소년이 온다'를 추천한 데 대해 "결코 지워지지 않는 역사의 트라우마는 인류 공통의 끈질긴 화두다"라며 "1980년, 광주라는 역사적 기억을 '지금 바로 여기'의 문제로 소환해 낸 걸작 '소년이 온다'는 상처의 한가운데서 결코 부서지지 않는 인간의 고결함을 노래한다"고 전했다.

최고의 책 2위는 정희진의 '페미니즘의 도전'이 올랐다. 정희진 전 이화여대 교수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담론을 '여성의 언어'로 재해석했다. 이어 '젠더 트러블', '사람, 장소, 현대', '날개 환상동', '21세기 자본'과 '파친코'가 뒤를 이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보리스 담블리·소피 덴블뢰 '배고픈 유령'

20일까지 포도나무아트스페이스

유령 하면 무섭고 기괴한 이미지가 떠오른다. '죽은 사람의 낮'을 의미하는 유령은 부정적 의미가 강하다. 유령이 배가 고프 수 있을까. 유령이 배가 고프다는 것은 다의적인 의미를 상징한다. 인간과 동일한 모습을 지닌다는 점, 희로애락에 육성 등 칠정의 감정도 갖고 있음을 전제한다.

'배고픈 유령'을 모티브로 한 전시가 열리고 있어 눈길을 끈다.

포도나무아트스페이스에서 진행되는 보리스 담블리, 소피 덴블뢰의 '헝그리 고스트'는 기억과 결핍에 관한 전시다. 유령이 되기 전 인간의 기억과 부채를 고스란히 인식하고 있다는 뜻이 겹친다.

오는 20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전시는 가연지소의 국제레지던시 2024의 결과물이다. 보리스 담블리, 소피 덴블뢰는 지난 11월 중순 광주에 도착

했다. 이들은 요동치는 탄핵정국의 정치적 격변에서 이방인으로서 광주와 한국사회의 양상들을 조우했다.

포도나무갤러리 정현주 박사는 "배고픈 유령'을 의미하는 전시 제목은 기억과 결핍에 관한 텍스트"라며 "사회 문화적인 '부채' 자체를 물질화하고 가시화하는 작업을 지시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아티스트들이 조우하고 공감했던 광주와 한국사회에 출몰하는 정신들, 기억들을 이번 전시에 풀어냈다"며 "겨울밤 '유령과 대화하는 법'을 배우는 작고 따뜻한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전시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예술가들로 이루어진 '유령부대'가 독일군을 압박하고 학살을 멈추기 위해 가짜 탱크들을 만들었다는 사실 등에서 모티브를 얻었다. 사회 정치적 문제에 대한 예술적 발언이자 예술가들의 고유한 참여방식이다.



'헝그리 고스트' 전시장 모습.

작품 '계엄'은 총과 총에 맞서는 손을 형상화했다. 오늘날의 한국 사회의 어두운 면을 환기한다. 전시장의 작품과 소품들은 실용적인 기능을 넘어 상징적인 매개체로 작용한다. /박성천 기자 skypark@